

성장률 까먹는 '폭력시위'

KDI 보고서

현대자동차 노조의 시무식 폭력 행위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아 매년 1%포인트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스스로 끌어 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법·질서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의 리스크 분석기관인 정치위기기관그룹(PRS Group)이 발표한 113개국의 1991~2000년 평균 법·질서 지

한국 '법·질서지수' OECD 중 최하위권

법·질서 안정화 매년 성장률 1%P 하락

수와 같은 기간 각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사이의 상관계수가 0.41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차문중 선임연구원은 "이정도 수치면 상관관계 정도가 의미있게 높은 것"이라며 "법·질서 준수 수준이 높은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

수준을 유지했다면 연평균 0.99% 포인트씩 추가 성장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치위기기관그룹(PRS Group)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991~2000년 법·질서 지수는 평균 4.4로 OECD 평균 5.5의 20%에 불과했고, 순위에서도 OECD 30개국 중 2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003년 한국의 법·질서 지수는 4.6으로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30개국 중 21위로 형거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과 함께 하위권에 속해 있다. /연합뉴스

현대차 노조 파업 손실액

20년간 10조원 넘어

현대자동차 노조가 1987년 출범한 이후 작년까지 20년간 각종 파업으로 회사측에 끼친 손실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파업으로 5천27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날려버린 셈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1987년~2006년 모두 335일(휴일 제외)간 파업을 벌였으며, 이 기간 생산하지 못한 자동차 대수는 104만 7천677대,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조

성과금 차등 지급 반발 임업거부 노조에

현대차, 10억 손배소 제기

5천40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매년 16.75일을 파업했고, 5만2천835대의 차를 만들지 못해 5천270억원의 매출 차질을 빚은 것이다.

특히 현대차의 생산물량이 크게 증가한 2001년 이후의 연평균 파업 손실액은 1조80억원에 달해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연평균치의 배 가까이 됐다.

/연합뉴스

율산지법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소장에서 "이들 노조간 부는 회사의 생산라인을 불법으로 종단시키고 기물을 손괴했으며, 관리직 직원을 폭행하고 교섭의무를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이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고 회사와 임직원들의 명예와 신용도 크게 손상됐다"고 밝힐 예정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임업 거부 등으로 인해 7일 현재까지 차량 7천752대를 생산하지 못해 1천200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온·오프라인

- 김종우



간판 바꾸고 잘들 해봐!

영산강환경청장에 박희정씨

신임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 박희정(54) 환경부 상하수도국장이 선임됐다.

전주교대와 한양대를 졸업한 박 청장은 환경부 자연공원과장과 기획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6년부터는 환경부 상하수도국장으로 재임했다. 박 청장은 8일 취임식과 함께 공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과기부 '우주개발국' 신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7일 "과기부내에 '우주개발국'을 신설하는 등 올해부터 정부 차원의 우주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우주를 정복하는 국가가 세계를 정복한다는 기치 아래 각국이 우주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2015년까지 세계 10위권의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개발증강기본계획을 시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3월중 국장급인 우주개발심의관과 우주기술정책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여수박람회 유치 기원 무등산 캠페인



여수 서강산학회(회장·박주용) 회원 40여명은 7일 광주 무등산 중심사 입구에서 2012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위치랑기자 jrwi@kwangju.co.kr

광고접수안내

구인·구직·운전·모집·

사업·제작·영업·부모

사업·제작·영업·부모